



니너  
2012 여름호

<u>4</u>	<u>기획특집 : 잘 먹고 잘살기</u>
5	밥
9	행복을 수확하려 난 지금 텃밭에 간다
12	채식으로 말 걸기
<u>16</u>	<u>삶의 돌보기</u>
16	우리가 직접 만난 비범한 가족들의 이야기, <정상가족 관람불가展>
20	장기근속 활동가 휴가 사용기
<u>24</u>	<u>만나고 싶었습니다</u>
25	첫 눈에 반한 상담소, 그것은 운명! : 본 상담소 10대 소장 백미순
29	'12주의 도약' 첫 걸음, 더트리그룹을 만나다 : 더트리그룹 프로그램 디렉터 채송희
<u>33</u>	<u>문득 떠오른 질문</u>
33	아이들의 성적 행동,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u>36</u>	<u>열린터 이야기</u>
36	친족성폭력피해자와 어머니
39	열린터 다이어리
<u>40</u>	<u>본편보다 재밌는 후일담</u>
40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기금마련 일일호프 후기 <열린터를 부탁해!>
<u>45</u>	<u>상담소 밥상</u>
45	상담소 아메요리: 만병통치 아이스크림의 비밀
<u>48</u>	<u>웬대! 상담소</u>
<u>51</u>	<u>나눔과 참여</u>
51	나눔 없이 열린터 살이 없다!
<u>54</u>	<u>훈훈한 기부</u>
<u>55</u>	<u>아낌없이 주는 나무</u>



## 잘 먹고 잘살기

안녕하세요.

너무 더워 입맛도 줄어드는 여름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살고 계신가요?

바쁜 일상을 보내다보면 내가 먹는 먹거리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내 몸에 약인지 독인지를 생각해볼 겨를 없이

그저 한 끼 때우는 데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소들이 곧 우리 몸을 구성한다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내 몸속에 들어오는 음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지

내가 먹는 음식이 나 자신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루 생각해보면

먹는다는 것은 단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이번 나눔터 기획특집에서는 잘먹고 잘살기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쿠나님은 자신의 삶에서 밥의 의미가 변화해온 과정을 돌아보고

캔디.D 님은 텃밭을 가꾸며 삶을 가꾸게 된 이야기를

봄눈별님은 채식을 통해 경험한 몸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무쪼록 세 여성들이 나누어주는 경험과 지혜가 잘 먹고 잘 살기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귀중한 팁이 되기를 바랍니다.

## 밥

쿠나 |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 본 상담소 회원

## 부업

어렸을 때 엄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압력 밥솥에 밥을 하고 국물 있는 음식을 만들거나 생선을 구웠다. 분명히 요리 이외에도 하는 일이 매우 많았는데도 엄마는 하루에 최소 두 번, 한 시간 이상 부업에 있었다. 그렇다고 식단이 눈에 띄게 변하거나 색다른 음식이 나오는 경우도 드물었다. 정성껏 상을 차려 내지만 나와 동생은 그것의 삼분의 일도 먹지 못하고 십여 분 안에 일어나곤 했으니, 부끄럽지만 격렬하게 식단의 지루함에 대해 엄마에게 항의한 기억도 난다. 결국 시간과 노력이 아까운 일이었다. 노동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리고 들인 공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 그래서 절대로 부업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며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 자취

어찌하다 보니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었다. 입에 착착 맞아 저절로 살이 찐다는 소문과는 달리 서양식의 달짝지근하거나 소금이 가득하며 기름이 줄줄 흐르는 음식들은 먹을 수가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기숙사에 부업이 있어서 밥을 직접 해먹기 시작했다. 혼자서는 심심하고 의욕이 생기질 않으니 이웃들을 불러 모아 같이 요리하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다. 일주일에

겨우 국 한 가지, 반찬 한두 가지로 지내지만 꼭 많은 양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로 배를 채우려고 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공부만 하는 외톨이인 것처럼 느껴졌다. 막상 스스로의 배고픔은 공부를 하기 위해, 억지로 음식을 뱃속에 꾸역꾸역 집어넣으면서 달래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집에서 먹는, 솔직히 말하자면 엄마가 차려주던 지루한 밥상이 간절해졌다.

### 도시락

귀국 후 드디어 취직이란 걸 했다. 1시간 동안 식당을 찾아가고 다닥다닥 붙어 십분 동안 밥을 삼키는 데 지쳐갔을 무렵, 도시락을 선택했다. 처음에는 밑반찬을 두세 가지 확보하여 따뜻한 밥을 싸가는 것으로 충분히 힘들었다. 가끔은 엄마의 손을 빌릴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조리도구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도시락을 먹으면서 비로소 회사에서도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일을 하기 위한 에너지원이 아닌, 하루하루를 내가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된 것이다. 점점 식사를 하기 위해 나다니는 시간이 줄고 대부분은 도시락을 싸온 사람들과 자리를 펴거나 때로는 혼자 먹었다. 고소한 밥 냄새가 '이제 머리는 쉬고 위장이 운동할 시간이야~'하고 신호를 주었다.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해 미련이 없던 내가, 내일 반찬으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전혀 시간이 아깝거나 귀찮지 않았다. 나를 위한, 그리고 잘 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터득한 기분이었다.

### 생존 노동

우여곡절 끝에 부모님 집에서 독립한 후에는 집에서 식사를 하는 시간도 늘어났다. 하우스 메이트와 요리를 하기도 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동네 친구와 나누기도 했다. 여전히 타이머를 맞춘 듯 한 시간 이상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제철 재료들을 이용해 살아가는 에너지, 활동하는 에너지를 스스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장하고 기특하다 여겨 스스로를 칭찬하기에 이르렀다. 더욱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아무도 나를 대신해 나의 먹기를 위해 노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였으며, 음식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준비하고 직접 만들어서 먹는 과정이 모두 나의 생존을 위한 노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 시간과 에너지는 결코 낭비되거나 아깝거나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살아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 다른 사람들과의 밥상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엄두를 내지 못한 일은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여 밥을 먹이는 일이었다. 독립해서 살고 있는 동네는 멋진 여성주의자들을 포함,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친구들이 지척에 포진해 있는 곳이다. 내 한 몸 먹이기에는 충분하나 어쩐지 그들의 끼니를 맛나게, 즐겁게 책임지는 일은 감당해 내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동네 친구들 30~40여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의 제안이 찾아왔다. 일인 즉슨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이하 마레연)'의 정모인 **퀴어밥상** 준비. 마레연은 2010년 성소수자의 권리를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 [cafe.daum.net/maporainbow2010](http://cafe.daum.net/maporainbow2010)

퀴어 : LGBTIQ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슈얼, 퀘스처닝)

지지하고 모든 종류의 차별에 반대하며 사회적 변화를 꿈꾸는 마포 지역 주민들의 연대를 위해 생겨난 모임인데 이번에는 마레연의 존재도 알리고 동네 퀴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을버스에 광고를 내기로 했고 그 비용 마련을 위한 큰 밥상을 벌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멋진 일이 아닌가, 마을버스에 탔는데 무지개 빛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혹은 반가움에 달뜬 얼굴들을 상상하면,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과의 밥상을 준비하게 된 것은. 그날,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음식을 담아 왔은 이들과 함께 둘러앉은 밥상은 새로운 기쁨이었다.

###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이런 식으로 밥을 담그게 된 마레연은 2010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모임으로 시작, 현재까지 거의 매 달, 밥상 정모를 준비해 같이 음식을 하여 나누고 영화 보기, 소풍, 실내 운동회, 강정마을에 현수막 만들어 보내기, 여성의 날 기념 잔차 액션 등을

즐겁게 지속하고 있다. 특히 쿼어 밥상은 마레연의 마스크트와 같은 의미일까. 매월의 셰프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 결정되고, 셰프가 메뉴를 결정하면 운영진들 및 자원자들이 같이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한다. 요리를 하지 못해도, 관심 없이도 상관없다. 다 함께 만들어서 똑같이 즐기는 밥상이니까. 이미 3년 차로 접어든 즈음이면 메뉴도 중복되고 질릴 만도 한데 셰프들은 각자의 개성에 맞게 매번 즐거운 음식들을 제안한다. 물론 실패할 때도, 어려울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커리와 난을 야심차게 제안한 경우. 아무도 난을 직접 구워본 적이 없어 모든 손에 밀가루를 묻히면서 가지각색의 아류 난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래도 괜찮다. 뭐든 결국 모여 앉으면 하하 호호 웃음 속에 음식들이 사라져 간다.

### 변해가는 밥의 의미

옆어지면 코 닿을 거리의 친구들, 하지만 바빠서 집에서 조차 끼니를 제 때 챙겨먹기 힘든 친구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궁한 친구들. 매 주 만나는 친구도 있고 한 달에 한번 혹은 일년에 몇 번 얼굴만 보이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 처음 나오는 회원들도 있어 다소 어색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다. 그래도 밥상의 힘인가? 밥상의 마법인가? 테이블에 둘러 앉아 음식을 두고 마주 앉아 있다면 어느 새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게 된다. 사는 동네 얘기, 근래 힘든 일, 재미있는 일, 소소한 일, 혹은 사회적인(선거, 여성의 날, 강정마을 돕기 등) 액션의 제안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 모습들을 보면 야채를 씻느라 얼얼한 손이라던가, 매운 양파로 인해 눈이 아리던 것은 저 멀리 사라진다. 허무한 가사 노동에 불과했던 밥의 의미는 이렇게 변해간다. 이렇다 언젠간 동네 친구들을 모아 잔치를 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르고 좀 더 정성스럽게, 나만을 위해서도 1시간 이상 요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 쿠나 따뜻한 남쪽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도 현재 동네 친구들과의 삶에 폭 빠져 있는 여자.

행복을  
수확하러  
난 지금  
텃밭에 간다

캔디.D | 본 상담소 회원

텃밭은 로망이었다.

푸른 밭에서 건강한 땀을 흘리고, 그 땀으로 일군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얼굴로 수확한 농작물을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 사진작가의 멋진 사진이나, 귀농한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잡지들을 보면서 나는 텃밭에 대한 로망을 키워갔더랬다.

하지만 그 로망을 현실로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텃밭이 근처에 있지 않았고, 어떤 정보로 접근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자신도 없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그 작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를 결심하는 것 이상의 부담감이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내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쉽사리 농사를 짓겠다는 결심을 세울 수가 없었다.

그렇게 잡을 수 없었던 결심은 뜻밖의 경험에서 다가왔다. 2008년, 하루하루가 지친 마음의 연속인 생활을 하던 때, 마법처럼 반려동물을 키우겠냐는 제안이 왔다. 까맣고 작은 고양이와 함께 삶을 살기 시작한 이후, 나는 반려한다는 것, 함께 하는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우게 되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 마음이고 반려라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런 서로 반려하는 시간을 꽤나 보내고 난 후에서야 나는 텃밭을 일구는 것을 결심할 수 있었다.

친구들이 하고 있던 텃밭은 합정역에서 지하철로 한 시간, 그리고 다시 이십 여분 이상을 걸어 들어가야 하는 이름조차 생소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귀농운동본부에서 임대 해주고 있다는 땅은 꽤나 넓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 곳이었다.

내가 농사를 지은 첫해에는 네 명의 친구가 함께 농사를 짓기로 했다. 땅은 열 평. 처음에 친구들이 열 평을 짓는다고 했을 때 고작 열 평을 가지고 뭘 하겠냐고 웃었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음을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건강한 그늘음이나 가치가 있는 팜방울은 헛소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농사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땅을 갈아엎고, 퇴비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키워내는 과정은 인내와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그리고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이니만큼 일주일에 최소 한번은 절대 빠지지 말고 텃밭에 가야 하는 압박도 엄청났다.

뭐, 그렇게 투덜대긴 했지만, 그래도 텃밭은 신기하고 재미났다. 허허벌판이던 땅에 일주일, 이주일 이 지나면 작은 새싹이 마술처럼 솟아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그 새싹은 다시 올 때마다 부쩍부쩍 커져서 어느새 먹기조차 아까울 정도로 커다란 먹을거리로 변해있었다. 온갖 스트레스를 받는 일상에서도 토요일 아침 일곱 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고 텃밭에 갈 준비를 했다. 은평, 마포에 사는 우리들이 아침 일곱 시 삼십 분에 모여서 4호선 저 끝 쪽인 대야미역까지 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그런 걸음걸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텃밭의 식물들이 너무나 어여쁘게 커갔기 때문이었다.

텃밭을 일구며 내 삶도 바뀌기 시작했다. 냉장고 가득했던 가공식품들이 사라져가고 그 자리를 채소들이 메우기 시작했다. 오 년여를 자취를 하면서도 거의 해먹지 않았던 밥을 해먹고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다. 피자와 햄버거로 가득했던 저녁식탁을 내가 수확한 야채로 만든 김치찌개와 반찬으로 채워가기 시작했다. 어마어마한 변화였다.

그리고 점점 투덜거림이 잦아들면서, 토요일이 오기만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토요일에는 약속을 되도록 잡지 않았고, 오롯이 텃밭을 위해 하루를 투자했다. 맑은 공기와 작은 텃밭의 흙들과 함께 하노라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았

다. 스스로 치유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 시점도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르겠다. 텃밭을 위해 남겨두는 하루, 느리게 자라나는 야채들과 느끼는 여유로움. 그리고 수확으로 흡족해진 마음과, 그 수확물을 주위 사람과 나누는 풍성함까지……. 여유가 없고 짜증이 가득했던 삶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삶의 방향은 정말 작은 일에서 부터 바뀌어 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텃밭을 시작한 이후, 나는 좀 더 “잘 사는 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텃밭을 하면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함께 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방향도 조금씩 바뀌어갔다. 건강한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의외로 주변의 많은 이들이 건강, 공동체, 잘 사는 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친구들과 더 많은 교감을 나누면서 먹거리 생협, 의료 생협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물론, 이 모든 활동이나 관심거리들이 다 “텃밭”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과장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뭐 어때? 나는 지금 행복하고, 그 행복의 과정에 텃밭이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런 약간의 과장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텃밭에 대한 나의 로망은 작은 결심을 계기로 현실이 되고, 새로운 꿈을 꾸는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채소를 심으러 간 텃밭에서 행복을 수확했다. 당신은 뭘 수확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 자, 일단 작은 화분에 시장에서 산 대파 한 대를 심어보자. 그게 당신의 첫 텃밭이 될 것이다.

※ 캔디.D 망원동에서 7년, 고양이와 4년, '잘 먹고 잘 살자'를 좌우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채식으로 말 걸기

봄눈별

한 때, 나는 참 많이 아픈 사람이었다. 감기를 달고 다녔다. 장염도 자주 걸려 고생하는 날이 많았다. 무엇보다 마음이 참 많이 아픈 사람이었다. 사람에게 편안한 마음을 갖지 못했다. 때문에 상처를 자주, 깊게 받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이 쌓여가 나의 나쁜 기운들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스며들었다.

###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처음에는 나의 이런 아픔들이 스트레스 탓이라고 믿는 것은 무책임해 보였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나는 스트레스에 중독된 채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일과 사람, 돈과 조직, 과거와 미래가 주는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겨우 살아내듯이, 나는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된 이들처럼 지난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새로운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중중, 얼굴에 마비가 왔다. 배가 아팠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신경성입니다. 라고 의사가 알려줬다.

그런가요?

뇌종양 검사도 해봅시다. 라고 의사는 말했다.

다행히 뇌종양은 아니라는 결과를 받고 나서 나는 또 다시 담배를 피우고 괴로워하며 하루를 보냈다. 나는 또 다시 많은 것을 먹고 언제나 화를 내고 있었다. 집안에서는 다툼이 잦아졌다. 게다가 모든 소리와 모든 말들에 예민해져 평온한 생활이 불가능했다. 돌아버릴 것 같았다.

### 채식을 시작해야겠어.

4년 전이었다. 나는 아주 소심한 정도의 채식을 시작했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맛있게 먹고, 그렇지 않을 때는 대충 골라 먹는 시늉을 했다. 곱창부터, 갈매기살도, 이번에는 불고기. 이런 식으로 천천히 멀리했다. 고기를 먹지 않은 날은 속이 하염없이 편안하고 잠이 잘 왔다. 그러다 화가 나서 고기를 먹으면 다시 마음도 몸도 불편했다. 시나브로, 몸은 고기와의 작별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 나는 이따금 생각했다.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시간이 지나고 고기를 완전히 끊은 뒤에는 마음의 여유가 많아진다는 것을 느꼈다. 타인에게 관대해지고 사람으로부터 편안해진 나는 얼굴도 선한 인상으로 바뀌었음을 발견했다. 채식을 하면 스트레스에 강해진다는 사람들의 말은 사실이였다. 화가 잘 나지 않았다. 웃음이 많아졌다. 긍정적인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다.

몸 또한 달라지고 있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살은 건강하게 빠져서, 미달이었던 체중이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음에도, 몸은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고 날씬해졌다. 마비 증세를 일으키던 얼굴은 다 나은 듯했다. 각질도 사라져 매끈한 피부로 변했다. 특히 눈동자. 눈동자가 맑아졌다는 것은 참 기쁘고 놀라운 일이었다.

늘 달고 다녔던 감기도, 한 달에 한 번 꼴로 찾아오던 장염도 기별이 없었다. 몸은

전체적으로 가벼워지고 불안정함이 사라졌다. 한결 맑아진 머리로 많은 생각을 편안하고 여유롭게 다룰 수 있었다. 밝아진 얼굴 때문인지, 자연히 일상 속의 다툼과 짜증과 불만과 불평이 서서히 사라져갔다. 담배도 술도 완전히 끊을 수 있었다. 몸이 그것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었다.

다만 채식을 하면서 탄수화물에 대한 집착이 심해져 고민이었다. 채식은 하고 있지만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을 유난히 많이 먹게 되었다. 그 때마다 아가의 몸처럼 예민해진 몸은 나쁜 신호를 보냈다. 나쁜 것에 둔했던 몸의 감각들이 살아난 것이라고, 누군가 알려주었다. 가수 이효리씨가 어느 날 트위터에 남긴 것처럼 감각들은 좀 더 영민해지고 마음은 비교적 여유로워졌다. 나는 별 고민 없이 가공식품도 멀리하기로 했다.

“잡곡, 야채, 과일, 해초, 견과류를 골고루 먹도록 해요. 밥은 꼭 현미밥을 먹어요. 골고루 먹는 채식은 영양소 부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요. 우유는 오히려 몸에 나빠요. 사람의 몸은 우유에 부정적이죠. 계란은 완전식품 중에서도 몸에 가장 나쁜 영향을 줍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채식 식당에 가서 콩고기나 밀고기를 먹으면 좋아요. 만약 완전한 채식을 꾸준히 실천하기가 힘들다면, 낮은 수준의 채식도 좋습니다. 일단은 고기만 끊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몸과 마음이 기뻐할 겁니다.”

이렇듯 채식을 권장하는 의사들의 말과, 채식을 오랫동안 실천 중인 사람들과, 중병을 약이 아닌 채식으로 이겨냈던 사람들의 말은 모아봄직하다. 옛 어른들은 고기를 한 달에 한 두 번꼴로 먹고, 밥과 나물과 장류를 많이 먹어 건강하게 장수했다고 한다.

나는 육식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육식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과잉 육식은 질병의 과잉, 고통의 과잉, 파괴의 과잉을 불러오는 것이다. 우리의 몸에 다다른 이러한 과잉들은 화를 불러오고, 다툼을 불러올 따름이다. 그

래서 채식은 평화와 건강을 위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만약 유기농 채식을 하게 되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고기를 먹던 돈으로 유기농산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신과 내가 직접 만난다면 채식하는 사람이 겪은 많은 변화들을 선명하게 각인시켜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전한다. 대신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채식을 권하려 한다. 부드러운 눈길로, 나의 상처에게, 몸과 마음에게, 채식으로 말 걸기……. 지금 여기의 내가 증인이 되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 말기를 바라며.

※ 봄눈별 자발적 가난뱅이 백수. 마음 수행 중. 치유음악회 진행 중. 권정생 선생님처럼 살고 싶은 젊은 사람.



## 우리가 직접 만난 비범한 가족들의 이야기, <정상가족 관람불가展>

평화 | 언니네트워크 액션공감팀 활동가, 언니네트워크 회원모임 어떤사진관 관원



“정상가족은 이 전시 못 보는 거예요?”

“어떤 가족이 정상가족인데요?”

2012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혜화역 근처에 위치한 대학로 갤러리에서 그 이름부터 비범한 <정상가족 관람불가展>이 열렸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언니네트워크와 가족구성권연구모임에서 함께 진행한 이번 전시회는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상’의 궤도를 벗어나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란 이성 간의 혼인과 임신/출산으로 만들어지는 가

족을 의미해왔다. 가족의 정상성은 나이, 성별의 정상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삶을 재단한다. 특정한 나이에 특정한 성별의 파트너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임신/출산하는 것,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안정적이며, 누구나 겪게 되는 정상적인 가족 구성의 과정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은 정상가족 규범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며, 우리 사회에는 이미 결혼/임신/출산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벗어나 살고 있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정상가족이라는 견고한 규범과 경계를 문제화하고, 실제로 그 경계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가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된 다양한 가족은 공동체가족, 장애여성가족, 비혼모 가족, 동성애자 파트너십, 트랜스젠더 파트너십, 비혼 여성과 반려동물 가족 등, 총 열 개의 가족이다. 우리는 각각의 가족을 만나 그들이 함께 살게 된 경위, 함께 살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 가족 내에 있었던 에피소드 등에 대해 질문하며 다양한 가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리는 각 가족들의 이야기를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각 가족들의 인터뷰 내용은 사진 촬영을 기획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 인터뷰 녹취록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면서 각 가족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넬 수 있을지 고민했으며, 이러한 고민의 과정은 곧 사진 촬영 기획으로 이어졌다. 인터뷰가 종료된 후 우리는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내용들을 추려냈으며, 그것을 사진으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몇 장의 사진 안에 다양한 가족들이 가진 사연을 충분히 담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각각의 가족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진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단지 인물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 끝에, 각각의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의 공간성을 사진에 담는 전략을 사용했다. 그들이 어떤 공간에서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은 관객들로 하여금 그들을 더 잘 이해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아웃팅(outing)의 우려 때문에 일부 모델들이 얼굴을 드러내지 못했던 동성애자/트랜스젠더 파트너십 섹션의 경우에는 그들의 삶의 터전인 집 내부, 동네 풍경, 일터 등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

이외에도 우리는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숱한 고민들과 마주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한 가족이 갖는 다양한 모습들 중 어떤 모습을 더 부각시켜서 사진으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점이였다. 처음에 나는 제도 밖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만을 보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관객들에게도 다양한 가족들이 제도 밖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동안 다양한 가족들은 ‘취약가정’ 프레임 안에서만 다뤄졌기에, 늘 어딘가 부족하거나 불안정한 모습으로만 그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진 촬영을 할수록, 그들의 밝고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이미지 또한, 불안하고 위태로운 모습으로만 묘사하는 기존의 이미지들 만큼이나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다양한 가족들이 제도 밖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며,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다양한 노력이 그 가족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다양한 가족들이 노력을 통해 획득한 가

족 내 친밀성과 안정성이라는 면과, 제도 밖에 살면서 경험하는 차별이라는 면을 사진에 함께 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사진 촬영이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작품 설치 기획에 들어갔다. 각각의 가족 섹션에 대한 설치 기획은 모두 쉽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전시 오픈일 바로 전날까지도 끊임

정상가족관람불가展 전시사진  
동성애자 파트너십 섹션 중 게이 파트너십



없이 기획이 수정될 정도로 갤러리 공간 구획과 기획이 어려웠던 섹션은 바로 공동체가족이었다. 공동체가족 섹션은 몇 장의 사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여주기 상당히 어려웠다. 동성애자/트랜스젠더 파트너십 섹션처럼 커플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도 아니었고, 장애여성 가족이나 비혼모 가족처럼 혼인/혈연으로 구성된 가족도 아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족에게 ‘당연한 것’이란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공동체가족의 경우에는 그들이 모여 살게 된 이유부터 가족 내 역할 나눔이나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 등 하나씩 찬찬히 뜯어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맥락들이 있었다. 따라서 공동체가족 섹션은 다른 섹션들과는 차이를 두어, 공동체가족이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혹은 그들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실제 물건들을 받아와 갤러리에 설치 전시하였다. 관객들이 직접 만지고 듣고 보면서 공동체가족들의 삶을 간접 경험하고, 그들이 사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거의 반년 가까웠던 전시 준비 기간이 끝나고 전시를 열었을 때, 가족구성권리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듯 9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상가족 관람불가展>을 찾아주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족 형태의 다양함 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들 수 있는 관계와 친밀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담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대한민국의 법제도 등을 목격할 수 있었기를 바란다. <정상가족 관람불가展>은 끝이 났지만, 이번 전시가 가족구성권리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마중물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 평화 대학생 여성주의자들의 탄탄한 연대체를 꿈꾸며,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 정상가족관람불가展 전시사진  
동성애자 파트너십 섹션 중 레즈비언 파트너십

## 장기근속 활동가 휴가 사용기

마도 |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상담소는 상근활동을 시작해 만 3년 이후부터 매년 연차와는 별도로 ‘장기 근속 휴가’가 주어진다. 상근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2009년부터 상근활동을 시작해 어느덧 만 3년이 지난 나는 5월 중순 경 2주(10일) 간의 휴가를 다녀왔다.

### 목은 먼지 털기

휴가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전거 타기였다. 올봄, 어떻게 하면 삶에 생기를 불어넣을지 고심하다가 마련한 자전거다. 바람을 가르며 이 동네 저 동네를 쏘다녔던 어린 시절의 희열이야 늘 간직하고 있었지만, 막상 탈 시간이 여의치 않아 번번히 구입을 미루고는 했던 것이었다. 사놓고도 한두 번 타고 세워만 두고 있다가 휴가 기간에야 비로소 제대로 페달을 밟을 수 있었다.

수원에 살고 있는 터라 수원 화성(華城)의 성곽 주변을 돌기도 하고, 이웃 동네 재래시장까지 가서 유명하다는 만두를 사오기도 했다. 허벅지에 일어나는 경미한 경련과 함께 땀을 빼질빼질 흘려가며 내가 사는 지역을 오랜만에 돌아봤다.

자전거로 40분을 달리면 다다른 ‘시내’는 10대 시절 부산히 놀러 다니던 그곳이 아니었다. 시끄러운 음악과 활기로 가득했던 상점가는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조용하고 한산한 재래시장이 되었고, 오래된 골목에는 작은 공방이 여럿 들어서 있었다. 화성의 북문(北門)에 위치한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아 쉬면서 길게 난 성곽을 보고 있자니 누군가 내게 “너는 한국의 로마에 살지 않냐”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실 이견 좀 과장된 말이다).

20년을 넘게 살아온 지역임에도 좋아하기 시작한 것이 몇 년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화성은 늘 그냥 거기에 있었고, 성곽을 따라 난 길은 학교에서 시내까지 가는 길목일 뿐이었다. 그리고 난 항상 이 작고 촌스러운 도시를 벗어나고 싶었다. 한 시간을 조금 더 가면 휘황



찬란한 서울인데, 못 갈 것도 없는데, 전철을 타고 한강을 지날 때마다 ‘언젠가는 꼭 서울에서 살겠다’고 꿈꾸던 때도 있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 다시 보니 오히려 조금 더 성곽 근처, 오래되고 한가로운 동네에서 살아봐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닳도록 드나든, 잠시 거주하기도 한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마음이 점차 복잡해지는 것만큼 이곳에 대한 기억과 감정도 해마다 한 겹씩 걸을 달리하며 덧씌워질 것이다. 천천히 흐르는 풍경을 뒤로 하며 자전거 위에서 처음으로 해 본 생각이다.

### 떠나야만 한다

무려 2주라니, 어떻게 하면 금쪽같은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생각해봤다. 다만 별다른 계획 없이 그저 ‘여행을 가야 한다’는 마음 정도는 있었다. 긴 휴가를 떠났던 다른 활동가들은 여기저기—저 멀리 유럽까지도 잘도 다녀오던데, 나는 난감했다. 원체 여행에 취미가 없고, 낯선 곳에서는 호기심보다 긴장이 앞서는지라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과연 나에게 진짜 휴식인지가 의문이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보고 싶은 것도 사실이었다.

아무데도 가지 않는 것보다 어디라도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마음으로 동남아 지역의 여행 가이드북을 샀다. 조금 설레기도 했다. 그러나 어영부영 시간은 지났고, 인터넷에는 “○○만 원에 저렴하게 다녀왔다”는 후기 글이 난무하는 가운데, 휴가 예정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항공권 가격은 훌쩍 높아져 있었다(미리 봐두었던 호텔도 만실 상태). 내가 역시 그렇지, 혀를 차며 여기저기 다른 (저렴한) 곳을 알아보는



가운데 눈에 띈 곳이 중국의 상하이였다.

여행은 상담소 활동가인 두나와 3박 4일로 다녀왔다. 상하이는 중국 근대의 흔적을 목격할 수 있고, 그보다도 훨씬 오래된 풍경도 만끽할 수 있는 곳이었다. 굳이 말하면 그랬다는 거고, 화려한 현대식 도심과 근대의 거리, 그리고 인근의 유적지까지 두루 갖춰진 도시였다는 거다. 특히 과거와 미래의 두 변화가가 형형색색 빛을 내며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있던 모습은 기묘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난무하는 속에서 며칠을 보내야만 하는 것은 매우 낯선 경험이었다. 아무래도 같은 문화권이다 보니 옆의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는 마치 한국인이자 싶었지만 잠시 침묵이 흐르거나 혼자 남겨져 있게 되면 풍경은 갑자기 생경해지고 나오는 단절되었다. 낯선 자가 되기 위해 여행을 하는 것이라면 그게 매력이기도 하다는 것을 처음 체감했다. 이런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금처럼) 영어를 못 해도 괜찮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건, 좀 그렇지만.

### 방은 노란 잠수함

뒤늦게 쓰건대 내게 이번 휴가의 키워드는 여행이나 휴식보다 '잠수'였다. 활동·업무에서 훌쩍 떠났다가 새로운 기운을 받고 돌아오는 것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잠시 동안의 단절과 침잠이 필요했다. 여행에 크게 구미가 당기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욕구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생각해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집과 내 방이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은 아무래도 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내 공간은 그저 방 한 칸이 전부다. 방

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것이 온전히 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는 방문을 꼭 닫아놓고 칩거나 다름 없이 지냈다.

게다가 방에는 놀 것이 많다. 항상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고, 읽지 않은 책과 듣지 않은 음악이 잔뜩 쌓여 있고, 영화나 드라마도 보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다. 요즘은 노래 만드는 강의까지 듣고 있어서 숙제니 기타 연습도 해야 했다. 휴대폰이야 멀리 던져놓았다.

방에서의 잠수는 고요했다. 가족과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눈 뜨면 무언가를 보고 듣고 먹고, 자면 됐다. 단순한 일상은 머릿 속을 좀 씻어냈다. 오랜만에 내가 만든 반찬으로 며칠에 걸쳐 집밥이란 것을 먹는 것은 몸을 씻어내는 듯 했다. 계속 이렇게 막편한,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빠르다는 것도 실감했다. 나와 얽혀있는 많은 것들이 모두 다 그렇게나 중요한 것인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며칠 지나 모든 것에 무력감이 올 때 즈음, 휴가는 끝났다.

### 삶의 정경을 바꿔내는 걸음

휴가는 분명 '무언가'를 위해 보내는 시간일 것이다. 과거에 질리도록 쉬어본 적이 있다. 척추가 녹아내리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오랜 시간 잠만 자본 적도 있다. 무위도식하는 삶에도 어쩔 수 없이 기한이 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 매일이 호우인 현재, 이번 휴가는 흔치 않은 고요였다. 서로가 조금씩 섞여들어 점차 균형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지금 막 뚫 참이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고요한 가운데 가끔씩 호우가 쏟아지는 삶을 일궈보면 싶다.

#### ※ 마도

1.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장난감이던 시절도 이제는 갔다.
2. 경험과 영혼의 노래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상하이에서 '상하이 로맨스' 같은 노래를 만드는 것도 까먹었다. 칭따오(靑島) 맥주에 상하이(原味) 스파이스 치킨 버거만 쳐먹었다. 나란 사람, 어리석게도…….
3. 마, 마이 이모션……! 마, 마이 소울……!

이번 호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손님은  
지난 1월 총회의 승인을 거쳐 본 상담소의 10대 소장으로 취임한  
백미순 소장과 더트리그룹의 채송희 선생님입니다.

interviewer\_임순영 (본 상담소 운영자문위원)  
interviewer\_ 최란 (본 상담소 여성주의 상담팀 활동가)

### 첫 눈에 반한 상담소, 그것은 운명!



본 상담소 10대 소장 백미순



더트리그룹, 프로그램 디렉터 채송희

'12주의 도약' 첫 걸음,  
더트리그룹을 만나다!

## 첫 눈에 반한 상담소, 그것은 운명!

본 상담소 10대 소장 백미순



이번 호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손님은 지난 1월 총회의 승  
인을 거쳐 본 상담소의 10대 소장으로 취임한 백미순 소  
장입니다. 상담소에 '운명'같이 함께 하게 된 백미순 소장  
은 이제 막 신나는 모험을 시작했는데요. 반성폭력 운동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백미순 소장으로부터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와 활동 계획을 들어보았습니다.

interviewer\_임순영 (본 상담소 운영자문위원)

**Q** 상담소 소장직은 어떻게 맡게 되셨나요? 특별한 인연이나 계기가 있었나요?

**A**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함께 일했던 최영애 이사님(본 상담소 초대 소장, 이사)이  
저에게 상담소 소장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망설이지  
도 않고 '그럴까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지금 돌이켜 보면 운명적이었던 생각  
이 들어요. 첫 눈에 반한 거죠.(웃음) 제안을 듣고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따져보  
기보다 느낌이 좋았거든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식하면 용감  
하다고 하잖아요.(웃음) 그런 마음이 든 것은 제가 참여연대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던 동안에 이미 상담소 활동가들이나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신뢰하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또 인권과 관련된 저의 경험들을 상담소 활동에서도 녹여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Q** 상담소가 올해로 개소 21주년이 되었는데요. 긴 역사만큼 많은 역할을 해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새 소장으로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가요?

**A** 여성운동 뿐 아니라 시민사회운동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전망이나 비전 모색이 필



요한 시기 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영역에서 주로 담당해왔던 일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부분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운동 분야에서는 새로운 이슈나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제도화되지 않은 형태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상담소도 마찬가지고요.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역할이 제도화되면서 많은 상담소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상

담소는 이런 고민을 풀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특히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정부와 차별화된 상담과 지원을 하는 역할, 또 여성들의 내적 힘을 끌어내면서 동시에 이를 사회적 힘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 통해 성폭력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해결 방향과 대안을 사회에 제시하는 것도 상담소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상담소가 인권운동단체로서, 보다 확장된 인권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의 인권 및 차별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성폭력 이슈와도 깊이 관련되어있다고 보는데요. 성폭력 개별 사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의식, 가부장적 질서, 차별에 대한 우리사회의 감수성,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성폭력 문제 해결도 어렵기 때문에 상담소가 인권과 차별 문제에 관심을 확장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담소가 사회적 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담론을 이끌어내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내는 역할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중요한 사건을 많이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했던 건 중에 성차별이나 여성인권과 관련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요?**

**A** 골프장 경기보조원분들이 정년 차별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던 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골프장 경기보조원분들의 정년이 43세 정도 였는데, 이는 남성들이 여성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골프를 보조하는 역할로 인정하고 그들의 전문성에 대해 비용을 지불한다기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젊은 여성들의 여성성을 사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런 정년차별, 성차별적인 노동 조건 때문에 많은 여성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한참 경력을 쌓아가고 있을 때 그만두어야 했었습니다. 그 진정 사건을 정년 차별로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던 기억이 나네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했던 일들은 이처럼 제도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고 공감하면서, 제도가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당사자 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Q 성폭력에 관한 제도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A** 성폭력 정책과 관련해서 제도가 개인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어떻게 복지를 제공할 것인가와 관련된 행정시스템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 시스템이 작동할 때 발생하는 여러 인권침해의 요소에 대한 정부의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스템에 집적된 성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사회적 편견과 낙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시설 이용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고려하면 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행정 편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성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오랫동안 반성폭력 운동진영에서 요구해온 과제입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친고죄 규정이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친고죄 규정이 성폭력을 비범죄화 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와 더불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형법으로 일원

화 하는 것이나 공교육 안에서 반성폭력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 비폭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작업들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Q 앞으로 소장님은 어떤 컨셉으로 활동하실 예정이신가요? (웃음) 전임 소장은 '미녀 소장' 컨셉으로 다가갔었는데?**

**A** 타로를 보면 저는 여사제 카드가 나와요.(웃음) 여사제는 불보다는 물, 대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성찰이 특징인데 저와 맞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무언가를 도모하고 공부하는 것이 잘 맞는 소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면학 컨셉으로, 공부하는 상담소를 만들어 볼게요.(웃음)

**Q 마지막으로 회원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앞으로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어요. 지난 4월에 활동기금마련 일일 호프를 하면서 상담소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회원들을 만났는데요. 상담소에 무한 애정을 갖고 참여하고 후원하고, 또 비판도 하는 회원들을 만나면서 우리 상담소의 저력이 바로 회원들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원들이 바로 상담소를 상담소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크게 느꼈죠. 회원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상담소는 점심 식사를 활동가들이 직접 만들어 먹는데, 회원님들이 들려주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상담소의 점심에 회원 여러분을 모십니다!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고 설거지는 안 시킬게요. 꼭 놀러오세요!

※ 임순영 상담소와 반성폭력 운동에 새로운 바람이 불겠네요. 백미순 소장님께 무한한 기대와 애정. 기쁨과 반가움을 보냅니다. 근데 상근활동가들이 오랜만에(?) 면학하다 날 밤 새는 건 아닌지.^^

## 12주의 도약' 첫 걸음, 더트리그룹을 만나다!

더트리그룹, 프로그램 디렉터 **채송희**



이번 호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두 번째 손님은 더트리그룹의 채송희 선생님입니다. 상담소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더트리그룹은 상담소가 성폭력피해생존자를 많이 연계하는 심리 치료 및 연구 기관입니다. 매년 전화로만 성폭력피해생존자분들을 연계하고 직접 뵙기 어려웠던 채송희 선생님도 만나고, 최근 더트리그룹에서 펴낸 책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극복을 위한 12주의 도약> 이야기도 들으러 더트리그룹에 다녀왔습니다. 선릉역 근처, 삭막한 빌딩 사이에 아늑했던 공간, 더트리그룹에서 나눈 이야기를 씁니다.

interviewer\_ 최란 (본 상담소 여성주의 상담팀 활동가)

**Q 안녕하세요. 지금 몸담고 계신 더트리그룹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더트리그룹에서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 채송희입니다.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지는 8년째 되었는데요. 더트리그룹은 심리평가, 심리치료와 같은 임상적 치료와 심리학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가능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효과가 검증된 치료법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연구 활동과 출판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재교육 등 교육영역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학업을 마친 분들을 대상으로 좋은 치료자로 성장할 수 있는 수련과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재판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평가들, 피해상황에서의 대처나 가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평가하는 법정심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클리닉에 한정하지 않고 심리치료, 교육,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더트리'그룹'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Q 상담소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담소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A** 처음 상담소를 알게 된 계기가 상세히 기억납니다. 조용범 대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 상황과 기관을 잘 몰랐거든요. 그때 마침 상담소에서 강의 요청을 하셔서 상담소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알아보았어요. 대표님께 알려드렸더니 단번에 가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여성주의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상담소와 추구하는 바가 유사했거든요. 그 이후로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상담소에 상의 드리면 너무 쉽게 이해하고 많은 도움들을 주셨어요. 상담소도 그렇고 활동가들과도 각별해지면서 상담소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상담소도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점 규모도 커지도 활동력도 커지면서 서로 더욱 긴밀히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요. 든든합니다.

**Q 상담소에서 더트리그룹으로 연계되는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어떤 치료과정을 거치는지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A** 일단 상담소에서 연계되어 오시면 초기 진단 인터뷰를 통해 내담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심리평가를 진행합니다. 내담자 본인이 치료에 동의하시면 일주 또는 이주에 한번정도 진단명에 따른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해요. 그리고 상담소와 함께 여러 가지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교육부분이나 법정심리 등을 돕습니다. 치료기간은 보통은 삼, 사 개월 정도, 길게 되면 육 개월 정도인데,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일 년의 치료기간을 거치는 경우도 있어요. 상담소에서 연계되는 분들이 일 년에 열 명에서 스무 명 정도 되는데, 상담소에서 연계되어 오는 내담자들은 상담소와 더트리그룹 각각의 역할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게 되어서 그런지 치료과정도 잘 진행되고 결과도 좋습니다.

**Q 얼마 전 치료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치료를 위한 12주의 도약>이라는 치료자 가이드와 워크북을 번역해서 내셨는데요. 책 소개를 부탁 드려요.**

**A**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12주의 도약>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에 대해 삼십 여 년 동안 연구해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에드나 포아 (Edna B. Foa) 박사가 쓴 책이에요. 한권은 치료자 가이드이고 다른 한 권은 워크북인데 이번

에 더트리그룹에서 번역해 출간하게 되었어요. 제목을 ‘12주의 도약’으로 지은 것은 지속노출치료(PE, Prolonged Exposure Therapy)가 십이주를 기본으로 진행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내담자가 십이주라는 기간에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도약’은 다음 단계로 한 단계 올라선다는 단어의 뜻이 좋았어요. 그래서 ‘12주의 도약’ 이라고 책 제목을 정한 거지요. 사실 심리와 관련된 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딱딱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 디자인과 책 크기에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12주의 도약’은 치료자와 내담자가 같이 공부하면서 보는 책인데 워크북만 보더라도 설명이 쉽게 되어있어서, 내담자들이 몇 장만 보아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본인의 증상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이 책에 소개된 치료요법은 지속노출치료(PE)인데요. 지속노출치료는 회피를 통한 기억의 잘못된 인지를 바꾸는 치료법이에요. 너무 강한 자극으로 생긴 심각한 정서적 고통은 잘 잊혀지지 않아서 회피하게 되거든요. 회피를 하면 기억이 정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딘가에 묻히고, 그 기억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떠오르고 연상이 되면서 플래시백이 생기구요. 그래서 회피하지 않고 흩어진 기억을 모으는 건데,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지속노출치료(PE)를 하기 전에 반드시 다이어렉티컬 행동치료(DBT)를 먼저 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스킬을 먼저 배우고 시작합니다. 지속노출을 통해 꺼내진 기억은 인지수정을 통해서 조정하게 되고요. 다시 말하자면 노출과 인지재구조가 지속노출치료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런 노출과 인지재구조를 12주안에 진행하는데요. 지속노출치료가 필요한 내담자분들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우울증, 사회공포증, 특히 자살 위험 등이 있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와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이 워크북도 있고 치료자가이드도 있지만 셀프가이드는 아니에요. 혼자 보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Q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A** 외상스트레스후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의 주변사람들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2차 피해는 주로 주변사람들에 의한 것들이 많거든요. 본의 아니게 피



해를 숨기다 몇 년 있다가 이야기 하면, 주변사람들이 왜 이제야 이야기하느냐고 비난하는 경우도 많아요. 피해 사실을 말하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피해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는 하는데, 다른 한편 그런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니까 서로 힘들어하다 가족이 해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 같은 경우는 꼭 공부를 했으면 해요. 물론 누구에게나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누가 읽더라도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Q 마지막으로 상담소와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A** 성폭력이라는 말을 어떻게 입에 담느냐는 우스운 일들이 벌어지던 게 불과 십여 년 전인데요, 그런 것들을 바꿔온 상담소의 운동과 활동에 감사드려요. 이제는 개개인의 피해생존자도 옹크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본인 혼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해요. 물론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회적 통념과 관념도 없어져야 할 거고요. 그러려면 회원 분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앗, 그리고 후원도 많이 많이 하고요. (웃음)

더트리그림 홈페이지 [www.thetreeg.com](http://www.thetreeg.com)

# { 아이들의 성적 행동,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본 글은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사 "아이들의 성적행동, 놀이와 폭력사이(2012. 5.29)"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Q** 저는 다섯 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 불안이입니다. 며칠 전 딸아이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어요.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남자아이 두 명이랑 우리 딸을 포함한 여자아이 두 명이 빈 교실에 모여 옷을 벗고 서로 성기를 보여주고 만지며 놀았다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라서 딸아이에게 남자아이들이 몸 어디를 만졌는지, 얼마나 옷을 벗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딸도 당황했는지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하는 거예요. 요즘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성폭력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걱정돼 죽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혹시 아이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건 아닌지 생각하니 손에 아무 일도 잡히지 않고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From 불안이>

**A** 안녕하세요. 불안이님. 보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이상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다니 더 불안하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우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차근차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이들의 성에 대한 나의 생각부터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최근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신고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보호자와 교사들도 전에 비해 많이 늘었지요. 아동 성폭력 피해를 인식조차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덮어버리던 과거에 비하면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연일 끔찍한 아동 성폭력 사건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탓에 어른들은 '아이들의 성'과 관련한 모든 것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평소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보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나 가까운 어른들에게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평소 아이들의 일상에 귀 기울이고 대화 나누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안이님이 아이와 자세히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있었던 일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성과 관련한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성폭력으로 걱정하고 고민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몸을 보여주거나 만지는 병원놀이, 소꿉놀이 등 아이들이 하는 성적 행동이나 놀이에는 대부분 큰 문제가 없어요. 단지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보기에 불편하고 어색할 뿐입니다. 아이와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도 상대방의 성과 인격을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성폭력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에 대한 호기심으로 몸을 궁금해 하고 보여주며 탐색하면서 노니까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기겁할 일이지만 5, 6세 아이들의 발달과정에서 몸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과 궁금함이 재미있는 놀이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놀이니까 무조건 괜찮다고 판단해 아이들 행동의 의미를 짚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아이들 놀이에서 성폭력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해요. 만약 아이들 중 누군가 몸을 보여주도록 강요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졌다면 이는 성폭력적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계속 하면 놀이가 아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이들과 정확하게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무작정 혼내기보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혼내고 다그치면 아이들은 입을 다물고 이야기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호기심과 감정을 상대방을 존중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직 어리다고 내버려 두면 성폭력에 둔감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아이들의 성(몸)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은 하늘을 찌릅니다. 아이들에게 성(몸)은 재미있는 장난감이예요. 상상력도 풍부해서 어른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할 몸과 성에 관한 놀이들을 만들고 즐기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이라면 무조건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대수롭지 않은 장난으로 넘겨버립니다. 이런 상반된 태도는 둘 다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리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른들이 과도하게

성적 행동을 금지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은 자기 몸의 느낌이나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고 눈치를 살피게 되거든요. 또 어른들이 '아이스케키'나 '똥칩'처럼 장난 같지만 다른 사람들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아이들은 폭력에 무던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성과 몸, 행동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화 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화 내용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모두에게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어른들이 여자아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한다거나 남자아이니까 어느 정도 성적호기심은 당연하며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구별 지어 생각한다면, 아이들도 그런 차별적 성의식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게 되기 때문이지요.

불안이님도 아이와 다시 대화를 나누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의 시각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때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묻고 기분이 어땠는지, 누가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이야기 하면서 당시 상황과 아이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유치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거나 자신의 몸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보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성을 주제로 대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성에 대해 모르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런 대화를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저하게 되고요. 또 오랫동안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태도부터 성찰해야 하기에 더욱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용기 내어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누는 성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이들 안에 차곡 차곡 쌓여,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게 될 수많은 성적인 문제의 현명한 대처법을 찾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From 두나〉

# { 친족성폭력피해자와 어머니 }

공명 | 본 상담소 부설 열린터 부원장

본 글에서 인용한 사례는  
열린터 상담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생존자에게 법적 해결은 성폭력 피해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성폭력 피해가 지속적이고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친족성폭력의 경우에는 증거가 없어서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불구하고 법적 해결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법적 대응은 그동안 자신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지 자책하고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것에 집중하던 가족들도 가해자의 범죄 행위로 관심의 초점을 돌리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개소 초기부터 현재까지 열린터를 거쳐간 생활인의 다수가 직계 가족 관계 안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생활인들은 가해자이기 전에 아빠이고 오빠인 그들이 변할지도 모른다고 기대하고,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라는 희망에서 고소를 주저하기도 한다.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 외의 다른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성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가 가족과 분리되어 생활하게 되어도 남은 가족이 해체되는 사례는 드물고, 다른 가족들이 피해자를 선택하고 지지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피해자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어머니도 가해자의 편을 들며 성폭력 피해를 은폐하려 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한다. 심지어 딸에게 남편을 빼앗겼다고 느껴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 어머니에게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며, 가해자보다 어머니를 향한 분노를 더 크게 나타내기도 한다.

## 가해자인 남편을 선택한 어머니

A는 친부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로 가해자인 아버지는 법적 처벌을 받아 구속되었다. 그렇다면 폭행과 협박을 일삼던 가해자의 처벌이 이뤄진 후 A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었을까? A는 자신을 지원해주는 활동가, 상담원들을 만나면서 성폭력피해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도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집을 떠나 쉼터에서 살고 있는 자신보다 앞으로 부양자 없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닥쳐온 어려움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했다.

때때로 A는 가족들이 보고 싶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지만 그녀를 걱정하거나 염려 하는 말 대신 “너희 아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은 난리가 났다”, “지금이라도 내려와서 가족들에게 사과해라” 라는 회유 혹은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A는 아직도 아버지의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어머니가 밍다. 하지만 언젠가 가족 안에서 일어났던 성폭력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A가 선택했던 법적 해결이 결코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어머니의 선택

B는 의부에 의한 강간과 성추행 피해로 열린터에 들어왔다. 몇 년 동안 반복된 성폭력 피해보다 B를 더 힘들게 한 것은 가해자의 성폭력에 가담했던 어머니였다. 남편의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남편의 성폭력 사실을 모르는 척 하며 피해자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B에게 단 하나뿐인 가족이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는 분명했지만, 성폭력에 가담한 어머니도 처벌될지 모른다는 걱정과, 유일한 가족을 잃을지도 모를 두려움 때문에 고소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았다.

딸의 안전을 걱정하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사건 발생 초기와 다르게 법적 진행이 될수록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태도는 가해자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차지하고라도 어머니의 처벌만을 막고 싶었던 피해자를 또다시 힘들게 했다.

### 스스로 찾아가는 가족의 의미

C는 친부와 단둘이 살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폭력과 성추행에서 벗어나고자 집을 도망쳤다. '이렇게 맞고 지내다가는 아무도 모르게 죽겠다'는 공포를 느꼈던 C가 집에서 챙겨올 수 있었던 것은 옷 한 벌뿐이었다.

열림터에 와서 C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언급을 꺼리던 가해자와 친척들의 의심스런 행동들도 서류에 적힌 어머니의 생존으로 거짓임이 밝혀졌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선명하게 쓰인 낯선 이름 석자는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면서 힘나는 의미였다.

가해자에 대한 기억과 흔적을 지우고 싶은 C에게 어머니의 존재를 확인하고 현재보다 나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훗날을 기약하는 것은 가해자인 아버지와 단둘이었던 가족의 의미를 재규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친족성폭력이 발생하는 가족 안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어머니가 피해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어머니들이 가해자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맞물려, 피해자를 지지하고 돕기보다는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 현실이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족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지받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한 이유이다.

비(非)가해 부모의 자립 능력이 없을 경우, 친족성폭력 피해 자녀와 비가해 부모에 대해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그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받아들이고 나만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찾아보는 것도 피해자가 친족성폭력을 치유하고 나아가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 공명 모르는 만큼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는 만큼 수월한 시간이 올 수 있을까 기대했던 적이 있었죠. 요즘은 어떤 결정이든 알과 상관없이 쉬운 것은 하나도 없네요. ㅠ.ㅠ

## 2012 상반기 열림터 다이어리

Diary

1월

움직임으로 만들어 가는 즉흥연극  
내안의 떠오르는 생각들 어떻게 표현할까요?  
웃긴 동작, 멋진 동작,  
다양한 동작을 만들어내는 순간,  
웃음 바다 속에서 즉흥연극이 진행되었습니다.



3월

침 치료

침추는 한의사 도희쌤께서 열림터에 방문하여 매주 침 치료를 해주십니다. 도희쌤은 방문하실 때 마다 늘 맛있는 과일과 먹을거리를 챙겨 오십니다. 감사히 먹게요!

5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1~2 켄레의 신발로 학교와 야외활동을 하는 생활인들. 이번에 새 운동화로 교체 하였습니다. 알록달록 예쁜 운동화와 시원해 보이는 슬리퍼 신고 더 활기찬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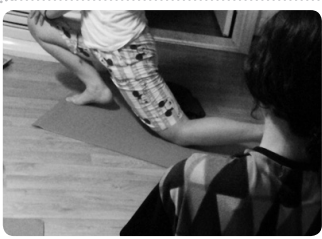
4월

일일호프, 열림터를 부탁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거부' 속에 진행된 일일호프! 열림터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어찌나 고맙던지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5월~6월

내 건강은 내가 챙긴다! 건강권 교육  
건강검진을 통해 스스로의 몸을 돌보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림터 식구들, 앞으로 운동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네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이니깐요 -▽-



6월

깊은 호흡과 파워풀한 동작의 조해! 요가수업  
6월부터 요가수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식구들 대부분 운동부족이라 비명과 함께 진행 되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수업이 었지요. 요가쌤의 탄탄한 근육을 보고 자극 받았는지 열심히 하는 열림터 식구들이랍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기금마련

일일호프 후기

열림터를 부탁해!

배 |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안녕하세요? 지난 4월에 열린 활동기금마련 일일호프(이하 일일호프) 담당 활동가 배입니다. 일일호프를 성공적으로 마친지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네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상담소는 어떻게 운영될까?

올해 상담소는 왜 일일호프를 열었을까요? 그건 바로 상담소 운영과 관계가 있습니다. 상담소는 시민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상담소의 전체 운영비 중 약 60%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약 천여 명의 회원들이 매달 납부해 주시는 회비와 더불어 일일호프와 같은 후원행사를 통해 활동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열림터를 부탁해! 왜?

특히 올해는 여러분들의 힘이 조금 더 필요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일일호프의 제목은 “열림터를 부탁해”였는데요.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상담소의 부설 쉼터인 ‘열림터’, 모두 알고 계시죠? 올해 4월,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열림터에 정부의 생계비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활인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기반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집적하는 정책에 대해, 열림터가 생활인들의 인권침해를 우



려해 개인정보 입력을 거부하자, 생계비를 중단한 것이지요. 쉼터가 생활인과 위치 정보에 대한 보안에 철저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는 곳이 알려질 경우 가해자가 찾아올 수도 있고, 정상가족이라는 범주가 확고한 우리 사회에서 쉼터 생활인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에 상담소는 생계비 충당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일일호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일일호프 제목도 <열림터를 부탁해>로 정하게 된 것 입니다.

특명! 자원 활동가를 모집하라!

일일호프 한 달 전, 상담소는 일일호프 개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열림터를 아끼는 열성 회원 공작님의 디자인 후원으로 역대 일일호프 중 가장 예쁜 티켓이 마련되었습니다. 티켓 판매를 위한 활동가들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적극적인 회원 여러분의 참여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일일호프 준비 과정에서 가장 쉽지 않았던 부분은 자원 활동가 모집이었습니다. 상담소와 열림터 활동가를 모두 합쳐도 열세 명. 삼백석이 넘는 규모의 일일호프를 개최하기에는 부족한 인원이지요. 일일호프에 함께 해줄 더 많은 자원 활동가들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자원 활동가를 모집하기 위해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사이트와 카페를 전전하기도 하고,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원 활동가를 모집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일일호프에 자원 활동가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으신 상담소 회원들도 한걸음에 달려와 자원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셨습니다.

### 드디어 행사 날!

시간이 쏠살같이 지나 행사일이 되었습니다. 활동가들이 호프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열 한 시. 건물 입구에 현수막을 걸어, 한국성폭력상담소 일일호프가 열린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자원 활동가들이 속속 도착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각자 맡은 구역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행사 시작 시간은 오후 한 시, 처음에는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오르지 않아 여유 있게 운영 할 수 있었습니다. 토리와 조화 활동가는 테이블을 돌며 상담소와 열림터,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퀴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상품도 드리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녁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기 시작했고, 갑자기 늘어난 손님들을 위해 주문 및 서빙 담당 활동가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 때문에 주문기계 앞에는 주문지를 손에 든 자원 활동가들이 한 줄로 길게 서는 장관도 연출되었습니다. 주방은 끊임없이 들어오는 주문에 정신없이 골뱅이 무침, 돈가스, 감자튀김, 과일안주를 만들고 또 만들고, 튀기고 또 튀기고, 깎고 또 깎는 정신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방 팀의 헌신적인 노력덕분인지 안주는 맛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답니다. 또한 바(Bar)를 담당한 떠비 회원님이 따라주는 생맥주는 완벽한 거품과 맥주의 비율로 손님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식혀주었습니다.

정신없고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호프집을 꽉 채운 손님들과 활동가들은 왁자지

껄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발바닥에 불이나도록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저녁 시간이 흘러가고,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9시 40분, 주문 마감을 알리는 소리에 주방 팀은 환호성을 지르며 설거지를 시작했고, 서빙도 손님들께 더 이상 주문이 어렵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일호프가 드디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 고맙습니다! ^o^

이번 일일호프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도움 주신 많은 분

### 열림터는 어떻게 되었나요?

올 3월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쉼터에 생계비 등 각종 급여 지원을 중단하고 징계(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열림터를 비롯한 전국 성폭력상담소들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폭력 관련 단체들은 여성폭력피해자의 정보 집적이 인권침해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정부는 3월에 지급했어야 하는 생계비를 4월에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을 거부하는 쉼터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소 및 열림터 회원님들, 이사님들, 자문 위원님들, 활동가를 친구로 둔 덕(!)으로 티켓을 구매하신 친구 분들, 언제나 상담소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상담자원활동가 분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소식을 듣고 후원 해주신 시민 분들, 여성 단체, 인권 단체 활동가들, 자원 활동가 분들을 비롯해 일일호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서투르고 실수한 부분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편한 점도 많으셨을 텐데 너그럽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배 상담소 들어와서 요리 실력이 일취월장(?) 하고 있는 활동가. 일일호프를 통해 회원 배가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답니다.^^

# 상담소! 야매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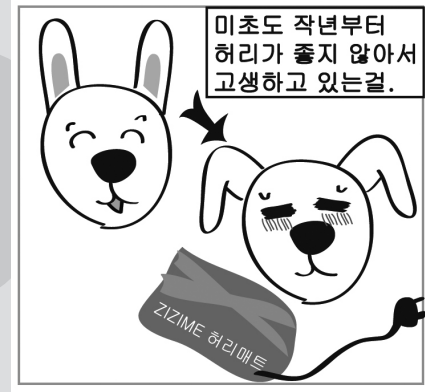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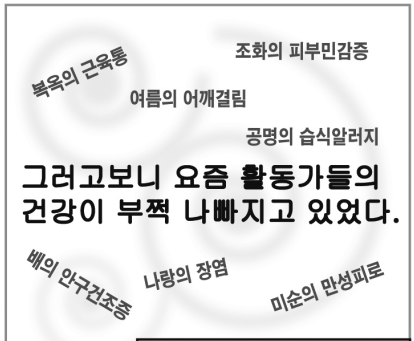
만병통치 아이스크림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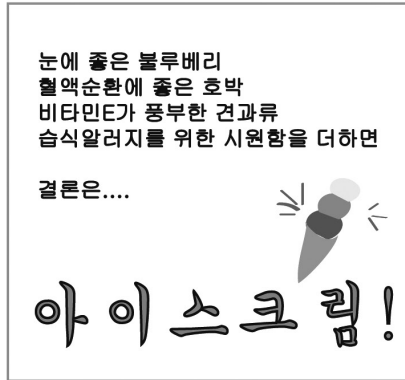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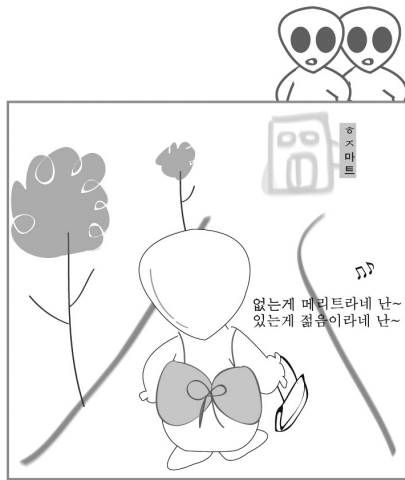


글 그림 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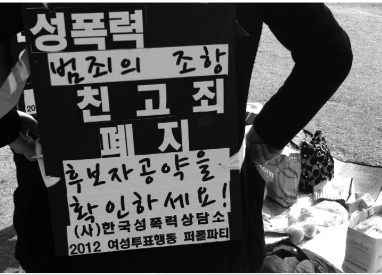
\*란: 여성주의상담팀의 호수같은 눈을 가진 활동가





※ 토리 반성폭력 운동보다 요리를 좋아하는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 2012년 1월 ~ 6월 활동보고 }

1.9~1.10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

1.13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투쟁 평가 토론회

1.17

[활동가 워크숍]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법적책 운동

1.26

[활동가 워크숍] 열림터의 여성주의 쉼터 운동

1.31

21차 정기총회 및 임원 이취임식

2.7

이미경 이사 박사학위논문 「성폭력 2차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발표회

2.8

제1008차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주관

2.21

[활동가 워크숍]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문화운동

3.8

여성 투표행동 퍼플파티 퍼포먼스 발족식

3.10

3.8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3.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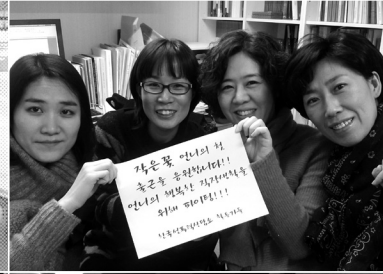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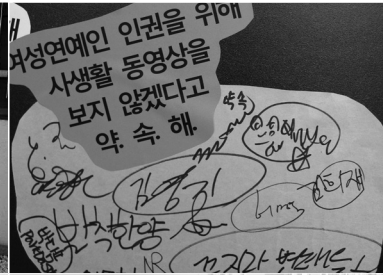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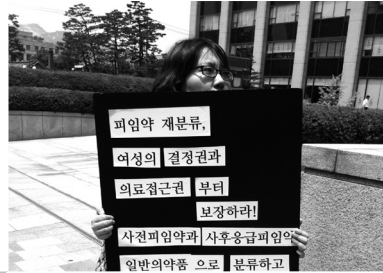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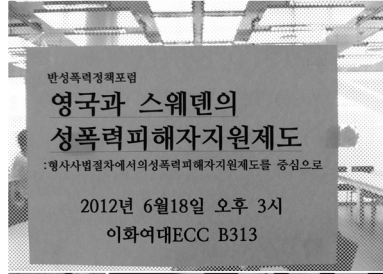
상근활동가 MT

3.26

상담자문위원회 개최

3.27

이사회 개최



3.28

2012 여성 투표행동 퍼플파티 퍼포먼스 발족식

4.6

인권 침해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한 여성폭력피해지원단 체 국가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4.10

수원살인사건 여성긴급행동 기자회견

4.13

상담소 개소 2주년 맞이 생일 떡 나눔

4.17~24

수원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 있는 대응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수원살인사건 긴급행동>

4.18

친족 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 제명 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

4.28

활동기금마련 일일호프 <열림터를 부탁해>

5.23

중앙대학교 인권문화제

5.30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제명촉구 국민청원 제출 기자회견

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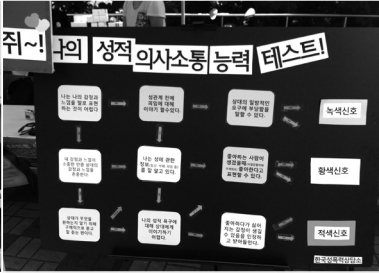
경구피임약, 사후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분류와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 및 의료접근권을 고려한 의료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6.18

반성폭력 정책모임 <영국과 스웨덴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6.25

성주재단과 함께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바자회





〈작은말하기〉

3.28, 4.25, 5.30, 6.27  
오후 6시 30분 합정역 부근 카페

〈4.11 총선 대응 활동〉

4.1  
보트피플 정치 토크쇼 & 유권자 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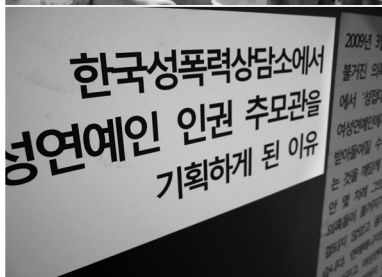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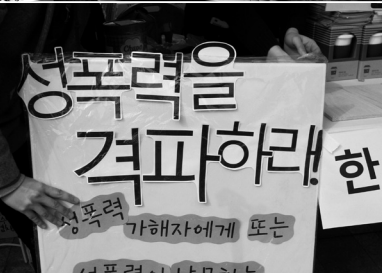
4.3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하는 커피 파티

4.3  
[기고] 젠더 정책과 성평등, 그리고 4.11 총선 (프레시안)

4.5  
2012 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 국회의원 후보자 대상 20대 성평등 정책 질의 답변결과 발표

4.5  
마포울 여성단체 커피파티 <마포울에서 여성을 묻다>

4.8  
4.11 총선 유권자 캠페인



나눔 없이  
열린터 살이  
없다!

나랑 | 본 상담소 부설 열린터 활동가

나눔으로 둘러싸인 열린터는 외롭지 않아요~

많은 NGO 단체에서 후원은 활동의 범위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쉼터인 열린터 역시 나눔이 없는 운영이 힘들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액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열린터는 특히 직접 얼굴을 보고 자신의 재능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어떤 나눔으로 열린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열린터에 살고 있는 생활인의 대부분은 친족성폭력 생존자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입으면서 늘 긴장해 있던 몸이 열린터에서 안정을 취하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신호를 보내옵니다. 목과 어깨가 뭉치고 굳어있는 것은 기본이고, 장기간 변비 때문에 고생을 한다든지 코피를 자주 쏟는다든지 위염이나 장염을 앓기도 합니다. 춤추는 한의사 도희쌤은 매주 한 번씩 열린터를 방문하셔서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 생활인의 건강을 체크하시고 침을 놓아주십니다. 너무 원하던 일이라고 하시면서 늘 과일이나 야채를 사들고 열린터 초인종을 누르시는 도희쌤, 밝은 기운으로 그 누구보다 열린터 생활인들을 걱정하며 챙겨주신답니다.

또 망원동에 있는 한 한의원에서는 장기간 한약 복용이 필요한 생활인에게 아주

저렴하게 약을 지어주고 계신답니다. 살림의료생협에서 활동하는 치과의사 인필님이 일하시는 치과에서는 이만 빼고 임플란트를 미쳐 해 놓지 못하고 집에서 나온 생활인을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임플란트를 해 주셨어요.

참, 얼마 전부터는 요가 선생님 한 분이 자원 활동으로 요가 강습을 해 주고 계세요. 청소년인 생활인들이 책상에 오래 앉아 있기 때문에 골반 풀어주는 동작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기 싫다고 하다가도 막상 시작하면 나름 진지한 태도로 눈을 반짝이며 요가를 배우는 생활인들. 공동생활을 하느라 늘 방방 떠 있는 생활인들에게 이 시간만큼은 고요하게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공부에 욕심 있는 생활인들을 위한 과외도 열린터 자원활동 중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올해 초 과외 해 주실 분을 찾기 힘들어 고민하다가 트위터에 올렸는데, 단 몇 시간 만에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기염을 토했지요. 많은 분들이 리트윗 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새삼스레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업도 갖고 계신 분들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정기적으로 오신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성실하게 애써주고 계세요. 참, 한 친구는 과외 선생님이 주신 백 원짜리 행운의 동전을 애지중지한답니다.

열린터 생활인들은 정부로부터 한 달에 약 만 오천 원 정도의 피복비밖에 지원받지 못합니다. 이 돈으로는 스타킹과 양말 정도밖에 살 수 없어요. 십만 원이 넘어가는 겨울외투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 반듯한 점퍼나 코트 없이 겨울을 보내고, 유행에 민감한 나이임에도 유행지난 옷을 입고 다닐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일 년에 한 번씩 자신의 생일 때마다 백만 원을 기부해주시는 고마운 회원님 덕분에 작년에는 한 명당 십만 원씩 자신이 원하는 옷을 구입할 수 있었어요. 올해도 늦어서 미안하다며 백만 원을 보내오신 회원님, 올해는 보내주신 기부금으로 생활인들의 이불을 싹 바꿀 예정이랍니다. 뽕송뽕송한 이불로 생활인들의 몸도 마음도 좀 더 안정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곳 저 곳에서 옷을 보내주기도 하신답니다. 요새는 옷을 떨어질 때까지 입는 경우가 없어서인지 보내주신 옷들 모두 깔끔하고 입기에 무리가 없어요. 다

만 큰 옷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날씬한 친구들에게만 옷이 몰린다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하~

이름도 얼굴도 빈 적이 없어 저희 활동가들 사이에서 ‘얼굴없는 천사’로 통하는 동네 주민이 계십니다. 이 분은 재운 갈비와 쌈채소, 수박 등을 상담소 계단 앞에 살포시 놓아두시고 전화하는 것으로 유명하세요. 제발 얼굴을 보여주시고 저희가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좋으려만. 혹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신 그 분인가요?

상담소 인근에 자리한 100주년 기념교회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지만, 한 권사님께서서는 집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물건들을 모아 왔다가 장바구니에 담아서 불시에 들이닥치신답니다. 린스, 바디워시, 생리대, 편지지, 플러스 펜 등등. 소박한 물건들이지만 그 마음이 따뜻해서 빙그레 웃음 짓게 된 달까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놀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의 나눔으로 열린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촘촘한 나눔으로 둘러싸여 있는 열린터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애씀과 에너지를 받아 열린터 생활인들이 건강하게 치유, 회복되어 자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활동가’라는 역할로 살기에 늘 “고생이 많다”는 말을 듣지만, 제가 보기엔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이 더 대단하게 느껴진답니다. 이 글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잖아요? 각박한 세상이지만 잠시 짬을 내어 자신이 가진 재능과 자원을 나누며 타인과 연결되고 싶으시다면? 언제라도 상담소와 열린터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 나랑 나의 한계를 잘 알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을 벌이거나 떠맡지 않은 법을 훈련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부터 내려놓아야 하겠지요.

♥  
올 상반기에도 상담소와 열림터에는  
흔한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 소중한 마음과 선물들이  
상담소와 열림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상담소】

21차 정기총회에

- 이윤선 전 소장과 백미소 소장의 가족 분들께서 후원하신 맛있는 떡과 샌드위치
- 성폭력피해생존자분이 보내주신 떡
- 상담활동가 국화님이 선물해 주신 떡
- 자문위원 이경환님이 선물해 주신 맛있는 케이크
- 송이송 회원님의 신선하고 향긋한 커피
- 이채 회원님이 깜짝 선물로 보내주신 아임리얼
- 이선경 변호사님이 보내주신 새콤달콤 천혜향
- 허정의 회원님이 보내주신 시원한 수박
- 사자 회원님이 보내주신 제주도 기운 가득 담긴 한라봉

상담소 생일을 맞이해

이미경 이사님이 마련해 주신 생일 떡

성폭력피해생존자지원과 반성폭력 활동을 위해

네이버 웹툰 <코스탄즈 이야기> 작가 김민정님과 이윤정 회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후원금  
오랜 인연으로 상담소를 응원해주시는 <성주재단>과 <문학동네>의 후원금과 후원물품

활동기금마련 일일호프에 함께 해주신

자원활동가 여러분

총회 자료집과 일일호프 티켓 디자인 기부로 상담소를 빛내주신 공작님

【열림터】

- 백주년기념교회에서 후원해주신 생활용품, 의류, 영양제, 식료품, 활동가들을 위한 스카프
- SK C&C에서 후원해주신 노트북 2대와 부자재
- 한국여성재단의 식료품 물품 나눔
- 네오위즈 마법나무재단에서 직업훈련비로 후원해주신 후원금
- 이선경 변호사님의 지인께서 보내주신 쌀, 과일, 의류
- 여름 활동가의 지인께서 보내주신 쌀
- 박지나님이 기부해 주신 의류
- 열림터 전 원장이셨던 사자와 노을 회원님의 열림터 활동가 MT 후원



2012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강공내 강명득 강현구 박현지 김대근 김도홍 김우혁 김지영 김차연 김화숙 마경민 박경옥 박상희 박은자 박지에 박희연 박희주 백미소 백인에 안지혜 오승민 윤다림 윤은정 윤희영 이성이 이수연 이윤정 이향화 임주현 장영아 진동일 전미숙 정보람 정지승 정현주 조윤경 홍난영 황성민 황주영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랑마을

2012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가람 강공내 강근정 강남식 강동화 강득록 강보길 강선미 강영 강영미 강영순 강영화 강은주 강이현주 강인화 강정희 강지이 강현구 강혜숙 강희진 고금이 고미라 고예지 고은별 고재경 고정남 고정삼 고효주 곽경화 곽옥미 곽윤이 곽현지 구민희 구분준 권경희 권구홍 권기욱 권김현영 권나현 권명진 권민혁 권소영 권오란 권인선 권인숙 권인자 권정 권주희 금철영 김가희 김강자 김경선 김경아 김경애 김경태 김경현 김경훈 김경희 김광만 김광수 김광진 김금선 김기혜 김나연 김남형 김다미 김대숙 김도홍 김도홍 김동래 김동령 김동현 김동희 김두나 김둘순 김매정 김명석 김문민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랑 김미선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자 김미주 김미주 김미희 김민규 김민성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민환 김범은 김병필 김보경 김보연 김보화 김상미 김상정 김상호 김세별 김석제 김선경 김선미 김선민 김선에 김선화 김선희 김성동 김성문 김성자 김세중 김세훈 김세희 김소연 김소연 김수 김수민 김수민 김수정 김수진 김숙영 김순자 김아리 김애라 김양지 김엘림 김연경 김연경 김연우(김태진) 김연지 김영서 김영선 김영선 김영세 김영신 김영환 김예람 김옥주 김요한 김용관 김용백 김원식 김원정 김원희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윤정 김윤희 김은경 김은숙 김은아 김은정 김은하 김은혜 김은희 김응진 김의창 김이미나 김이슬 김인에 김인혜 김일륜 김자경 김재원 김재원 김재원 김재원 김경수 김정완 김홍수, 권상범 김중희 김주영 김주희 김준호 김지미 김지선 김지연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훈(김혜리) 김진숙 김탁환 김태섭 김택진 김하나 김하나 김하연, 나성일 김하정 김한상 김한신혜 김혜경 김현 김현경 김현경 김현란 김현성 김현숙 김현숙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혜수 김혜경 김혜경 김혜진 김혜진 김혜진 김희정 나길희 나미나 나윤희 나인선 남길석 남덕우 남재인 남정현 남민희 남현우 노경란 노길숙 노미선 노민희 노복미 노선이 노유성 노재봉 노정주 노주희 노지성 도병욱 도상금 라길자 류만 류종현 류진봉 류정민 목소희 문경희 문기선 문길환 문김채연 문미라 문미정 문성훈 문수연 문숙영 문영민 문지영 문희진 문희정 민정원 박경옥 박경훈 박다위 박덕업 박명숙 박미라 박미란 박미선 박미숙 박미숙 박미영 박미영 박미향 박민주 박병현 박보영 박상규 박상희 박상희 박상희 박선숙 박선희 박성주 박성훈 박세정 박소라 박소림 박소연 박수연 박수진 박숙미 박순복 박승일 박이름 박영 박영주 박윤미 박윤숙 박윤주 박은미 박은진 박은혜 이준기 박정란 박정순 박정연 박정은 박정은 박중선 박주연 박준민 박준숙 박준숙 박지나 박지영 박진숙 박진표 박장경 박하윤정 박현달 박현숙 박현이 박현주 박현준 박혜진 박희연 방기연 방상희 방은제 배경 배은경 배자하 배재훈 배정원 배정철 배지연 백명숙 백미소 백미소 백선희 백선희 백성길 백세희 백윤정 백인에 백지선 백지훈 백현 변제희 상목스님 서권일 서명선 서명호 서미현 서민자 서백열 서범원 서석호 서순진 서영주 서예린 서용완 서정애 서정표 서정훈 서태자 서해인 서희석 서희손 선희갑 설연자 성길성 성지는 손경이 손기주 손명구 손명화 손미연 손보경 손연성 손우성 손정혜 손준성 손희정 송미현 송민성 송수영 송승훈 송애랑 송요신 송은주 송지선 송치선 송호균 신경우 신경혜 신동현 신동현 신명숙 신문창 신상숙 신상호 신선에 신성용 신원제 신윤진 신은재 신은주 신정혜 신종훈 신현 신현정 신현주 신혜성 심소영 심수희 심진섭 심장교 심현실 심혜련 안민 안보라 안재훈 안정은 안주리 안지혜 안창혜 안철민 안초롱 안하영 안하영 안형윤 안효진 안홍자 양동훈 양미초 양미초 양민희 양성옥 양수안나 양애경 양영희 양영희 양윤희 양은주 양지혜 양창수 양현경 양현구 양효준 엄인숙 오경희 오광수 오미근 오세희 오승환 오승민 오승이 오신혜 오자경 오자영 오정진 오경희 오지원 오진아 오현주 우안원 우완 우준희 원경주 원민정 원민혜 원성혜 원순경 원창원 원혜숙 원혜숙 원정란 유경희 유계옥 유백숙 유상열 유선옥 유선원 유세정 유숙조 유여원 유예리 유은주 유재영 유정호 유혜숙 유현광 유환숙 육상근 윤나래 윤다림 윤범석 윤석남 윤소희 윤수련 윤수연 윤숙경 윤애리 윤양지 윤양현 윤연숙 윤영란 윤영숙 윤영희 윤용미 윤은정 윤인영 윤자영 윤정희 윤종옥 윤준섭 윤지영 윤지원 윤지원 윤희영 음선화 이경로 이경미 이경숙 이경아 이경자 이경호 이경호 이경환 이계형 이교은 이광숙 이규화 이금란 이김명란 이나래 이나영 이남주 이내화 이다정 이동규 이동원 이동현 이명숙 이명숙 이명희 이문주 이미경 이미정 이미정 이미정 이민정 이병주 이보라 이부덕 이사광 이상근 이상연 이상은 이새롬 이서영 이서지 이선경 이선미 이선영 이선영 이성수 이성이 이세원 이소림 이소영 이소은 이소희(권소엽) 이송이 이수안 이수용 이승규 이승숙 이승진 이신정 이어진 이연실 이연정 이영기 이영란 이영미 이영아 이영자 이영주 이영주 이영택 이재지 이용창 이원경 이원수 이원홍 이유정 이유정 이윤경 이윤상 이윤선 이윤성 이윤옥 이윤희 이은 이은경



이은비 이은비 이은상 이은심 이은애 이은영 이은정 이은주 이은지 이인숙 이인환 이임혜경 이재순 이정민 이정봉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은 이정화 이종국 이종근 이주현 이준범 이준형 이지민 이지선 이지선 이지연 이지영 이지오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진아 이찬희 이창원 이창윤 이태숙 이한종태 이해사랑 이향심 이향화 이현숙 이현희 이해경  
 이해경 이해일 이해정 이해진 이호균 이호중 이호진 이홍연 이화자 이효섭 이희경 이희수 이희영 이희화 임복선 임선자  
 임수연 임수영 임승환 임자영 임주현 임주희 임지숙 임치선 임치순 임홍섭 임희윤 장규형 장다혜 장미정 장민경 장성희  
 장영아 장영애 장유진 장윤경 장윤성 장윤정 장은미 장익수 장정희 장종순 장진 장혜란 장혜영 장효정 전광우 전동일  
 전민주 전병미 전병희 전보민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영애 진유경 전정옥 전정현 전지현 전혜영 전호완 정경아 정경애  
 정교화 정귀원 정규리 정다미 정대근 정덕기 정동연 정두영 정명종 정문영 정민이 정보람 정복련 정세원 정소린 정소영  
 정숙경 정순희 정슬아 정안나 정여진 정영석 정영선 정옥실 정유림 정유석 정윤경 정은선 정인호(정창희) 정재훈(나  
 선영) 정정기 정정희 정정희 정준애 정지승 정지현 정진옥 정진화 정창수 정해랑 정현 정현주 제갈향선 조계삼 조규선  
 조나단 가이 파울러 조민우 조상희 조서연 조선주 조성천 조소연 조영선 조용범 조윤주 조은숙 조은영 조은정 조은희  
 조인석 조인섭 조인욱 조일 조일래 조재욱 조정옥 조정은 조중신 조지혜 조진희 조현미 조현아 조혜진 주광용 주리아  
 주명희 주혜정 주희진 지승경 지은정 지인순 지현우 진새록 진석중 진태란 차성안 차우진 차인순 차현영 채우리 채련숙  
 천정환 최경식 최광락 최광식 최광욱 최기홍 최대연 최대웅 최동석 최란 최미선 최미숙 최보원 최석우 최선규 최선이  
 최성숙 최성욱 최성호 최성화 최소란 최수연 최수인 최숙희 최순미 최아림 최연순 최영애 최영지 최예원 최옥경 최영열  
 최영득 최우영 최유미 최유진 최유진 최윤미 최윤정 최윤정 최윤정 최은영 최은영 최정원 최정은 최정희 최정희  
 최주정 최지나 최지녀 최지영 최진나 추민주 추정희 추혜인 춘옥 하나는 하다영 하은주 하종석 하진옥 한기모 한문형  
 한미화 한보경 한석구 한수현 한승진 한승희 한영규 한영미 한윤정 한재철 한재욱 한희정 허경현 허남주 허라금 허복욱  
 허은주 허이화 허정희 허정희 허준석 허효정 현정순 홍난영 홍만희 홍민철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순기 홍유미 홍유진  
 홍윤기 홍은정 홍일선 홍재진 홍주연 홍진경 홍혜선 황동하 황미선 황성기 황성민 황숙희 황순경 황은순 황재호 황정민  
 황정진 황주영 황지성 황지영 황지윤 100주년기념교회 네오위즈 마법나무재단 삼성인지감성연구소 (슈스마일서브  
 존타클럽 한국아마자키마작㈜ 한전부녀회 토란어린이집

**평생(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소와 열림터를 아끼는 마음 감사합니다.**

강대열 강정자 강지원 강진자 강학중 고정남 광미정 권윤진 권익숙 권진구 권형구 김경현 김덕현 김명희 김미주 김민정  
 김삼화 김선영 김예지 김옥란 김재련 김정의 김준길 김진영 김태진 김혜정 김화영 김효선 김희숙 나인선 노주희 니콜  
 라 레나레빗 명진숙 문경란 문혜란 민남기 박기원 박미란 박상순 박서현 박윤숙 박윤순(YM건설) 박지만(주식회사 EG)  
 배경 배삼희 배정철 변대규 변혜정 손용석 시연숙 신동연 신상호 신혜경 심공재 안백린 안지혜 안재영 안형정 야기  
 시노부 우기호 유소영 유효상 이경환 이경훈 이기철 이덕화 이동림 이명선 이명숙 이미경 이병규 이병우 이상구 이성순  
 이승기 이안나 이영숙 이영애 이영희 이유미 이유미 이유정 이정숙 이해경 이해사랑 이화영 이효숙 임미화 임순영  
 장병환 장윤경 장필화 전성혜 정경자 정동범 정몽훈(㈜효광) 정순희 정안나 정영택 정재정 정진옥 정휘재 조선혜 조성천  
 조영미 조영향 조인석 조일래 조혜욱 주관수 채영수 천수빈 천정환 청담마리산부인과 최보원 최영애 최정순 한국웰레크  
 허정 홍성규 홍순기 홍승아